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24. 12. 10(화) 18:00~19:30	회의장소	헬렌관 302호
참석자 (11명)	권하은(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박서림(학부 총학생회장), 박예림(사범대학 공동대표), 백은미(학생처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정덕유(총무처장), 정예진(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불참자 (2명)	박지혜(간호대학 공동대표), 전현주(대학원학생회장)		
안건	1.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2.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신설학부(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의결 및 합의사항	• 의결사항 [안건 1]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 승인 - 대상 : 학부/대학원 정원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 정규등록금, 학점/교과목등록금 : 7% 인상 - 입학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 동결 [안건 2]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신설학부 등록금 책정(안) : 원안대로 승인 -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 글로벌학부 등록금 계열 신설 및 적용		

01

851

51

<p>내 용</p>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의 요청으로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의 간서명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장에게 대표위원 3인에 대한 호선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4차 회의에서는 3차 회의의 합의와 같이 차기 학생대표자의 참관을 허용하였음을 알리고, 참관 의의가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의 논의의 지속성을 위함이므로 발언권은 없음을 안내하다. -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p>■ 회의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2.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신설학부(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 및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팀장이 두 안건이 연관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한번에 설명함을 안내하다. - 예산팀장이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정규등록금, 학점등록금, 교과목등록금을 7% 인상하고, 신설학부인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는 기존의 과정과 학제 및 학문적 특성이 달라 등록금 계열을 신설하여 학기당 정규등록금 5,718,000원 책정안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참고자료를 근거로 본교의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지원프
------------	--------------------------------------------------------------------------------------------------------------------------------------------------------------------------------------------------------------------------------------------------------------------------------------------------------------------------------------------------------------------------------------------------------------------------------------------------------------------------------------------------------------------------------------------------------------------------------------------------------------------------------------------------------------------------------------------------------------------------------------------------------------------------------------------------------------------------------------------------------------------------------------------------------------------------------------------------------------------------------------------------------------------------------------------------------------------------------------------------------------------------------------------------------------------------------------------------------

로그(EAASIS 프로그램, 행사 진행,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 TOPIK 수강료/응시료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열거하여 설명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타 대학 역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으며, 본교의 경우 그동안 최대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미뤘으나 필요 예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24학년도에 이어 2025학년도에도 인상을 하고자 함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 외국인 등록금이 내국인 등록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례를 설명한다.

2025학년도부터 외국인 신입생들은 글로벌학부에 소속되어 수학하며, 순조로운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지원받게 됨을 설명한다. 글로벌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지원을 전담하면서 외국인 전용 교양 교과 및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대학생활 맞춤지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서 외국인 유학생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초 소양 집중 교양을 완료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취득한 후에 전공에 진입하여 전공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글로벌학부 소속기간은 1년임을 설명한다. 글로벌학부 등록금 계열의 수업료는 정원의 외국인전형 모집대상 학부/학과 수업료 평균금액에 글로벌학부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신장하였으며, 해당 수업료는 글로벌학부 소속 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전공 진입 후에는 전공 소속에 맞는 학부/학과별 수업료를 적용함을 설명한다.

- 위원장이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이 있는지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오늘 안건 상정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외국인 신설학부 등록금 책정인데, 12월 등심위는 학부 등록금과 예산 관련 내용을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 12월 등심위를 요구를 한 것인데 왜 유학생 관련 등록금 책정만 있는지, 또한 1월 등심위 진행시 학생요구안이 12월 등심위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였는데 왜 생략되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 요구안 관련하여 등심위에서는 등록금이나 예산 관련으로 논의하므로 학생 요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안건으로는 채택하지 않지만 오늘 요구사항 논의를 진행하면 다음 등심위에서 예산 관련 논의를 하고, 1년간 학생위원들께서 제안한 것들을 수용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과 예산 관련이면 학생요구안이 우선되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안건에 내년 등록금이나 예산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를 드리기에 자료도 없고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1월에 진행되었던 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예산팀장이 지난 등심위에서 일정상 학생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학생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번 4차 등심위가 개최되었음을 설명하고 현재는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학생 요구안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임을 알리며 안건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러한 상황이면 안건에 학생요구안이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1월 등심위에서 예산과 등록금 안건이 각각 하루만에 의결이 되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인데 12월 등심위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만이 안건 상정되어 있으므로 1월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 것이며, 또한 타대학의 경우 12월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데 왜 본교만 불가한지 이유를 질문하다.

- 예산팀장이 내년 등록금과 예산 관련해서는 차기 학생위원들과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논의의 지속성을 위하여 참관인을 수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 개최의 맥락과는 맞지 않으며 2025년 등록금을 만드시 2025년 학생위원과 논의할 필요는 없으며 2024년 학생위원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다.

- 예산팀장이 12월 등심위는 개최하지 않는 학교도 많고 본교도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요구안이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지만 충분히 발언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회신하였듯이 관련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의 가능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과 다른 안건을 논의하면서 중간에 질의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내규상 학생요구안을 등심위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사항이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규상 학생 요구안은 안건 채택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적 절차상 내년 등록금과 예산을 12월 등심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게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그러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 관련 근거가 되는 사전 자료가 왜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올해 진행된 등심위에서도 예산, 결산 관련해서는 사전 자료가 있었지만 대학원 등록금 책정시 별도 사전 자료는 없었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결산 자료는 워낙 자료가 방대하여 회의 시간에 보기가 어려우므로 사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학생위원들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여 1월 예산 관련 등심위 전에 요청하면 당일에 사전 자료 열람과 문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응대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7%를 정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책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참고 자료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사전 자료를 2시간만에 열람하기에 자료가 방대하였는데 당일에 제공한다고 한 것은 자료가 미리 준비되기 어려워서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일정이므로 위원들이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는 확정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올해는 논의되었던 부분이므로 진행하며, 새로운 등심위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다.

-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지, 학교측 위원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타 대학은 12월 등심위를 진행한다고 하여 올해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업무 일정상 등심위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심위 위원들이 새로 위촉이 되는데 내년 12월 등심위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사전 자료를 열람하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은 확정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10시 정도부터는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답변하다.

고, 예산팀장이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의 업무 일정도 있겠지만 학생위원들도 학업과 병행하며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동안 학생위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등심위 구조 관련하여 결산 관련 등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12월 등심위도 고정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12월 등심위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오늘 회의 진행 후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이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의 의미는 위원이 변경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요구안에 대해 예산이나 등록금 책정시 논의할 수 있는 회차가 늘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제공된 안건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질의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글로벌학부의 수업료 책정이 어느 수준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모집 대상 학부/학과의 평균 수업료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학부/학과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충원 등 추가 소요 예산을 예상 학생수로 나누어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대상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정부보조금 등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고, 교비 등 관련 장학금이 이미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도 많이 신설하였으나, 학생 수가 많아져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다. 인상폭이 커보일 수 있지만 현재 외국인 등록금이 내국인보다 크게 차이나는 타대학과 비교하여 우리 학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설명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히려 내국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다른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 대비 실제 등록금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자료는 공개된 자료는 아니나, 각 대학의 내국인 등록금 차이가 크지 않으며, 우리 학교와 달리 타 대학들은 외국인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금이 높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타 대학보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높으므로 외국인 등록금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글로벌학부의 경우 호크마교양대학에 다니고 있던 외국인의 분리, 자치단체 운영 등 우려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등록금을 책정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호크마교양대학과 함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찾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 호크마교양대학은 학교 평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호크마교양대학 기존 학생 등록금은 얼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존 호크마교양대학 학생과는 관련이 없는 외국인 등록금에 관한 논의이므로 그 부분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방법에서 가산 금액은 무엇을 감안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력 충원을 하는 부분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며, 글로벌학부 소속시에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2학년부터는 전공에 맞는 등록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합격자 발표시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원 몇 명을 충원하였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프로그램이나 수업 담당을 하는 교원이 있으며, 3명 이상의 전담 교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어 수업을 위한 강사 채용 등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하다.

- 총무처장이 글로벌학부에 직원을 1명 추가 증원하여 배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유하고자 함을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외국인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서 자료는 공유해주면 사업 계획을 짤 때 참고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니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려주면 참고하겠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교 홈페이지를 볼 때 공지사항을 영문이나 중문으로 번역하지 않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글로벌학부가 신설되면 관련 업무도 배정이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과 관련한 내용은 글로벌학부에서 해줄 것이며,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외국어로 많이 안내가 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며, 알려주면 신경써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기획처장이 본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외국인 학생이 다수 있는 단과대학에는 언어 지원이 가능한 교직원들이 배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글로벌학부 신설시 모든 공지사항을 글로벌학부에서 번역하여 올려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질의한 부분의 담당 부서가 호크마교양대학은 아니며, 국제학생팀과 정보통신처 등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제공이 되고 있으나 디테일한 안내 관련하여 논의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중요한 내용은 학생처, 국제처에서 언어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글로벌학부와 논의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정원의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 관련 다른 질의가 있는지 질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책정했다는 것에 대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외국인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하며, 내년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재원으로 삼아 학교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므로 의견을 해주기를 바라며, 타 대학 사례나 외국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계속 반영하고 개선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정규등록금, 학점등록금, 교과목등록금 7% 인상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사범대학 공동대표,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4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 인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하기에 무리였고, 반대 이유는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학기초의 8% 인상안에도 불만족이 다수이며 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만족도가 높지 않아 반대한다고 발언하다.

-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가 사회대 2천명 학생 중 5백명 정도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학교가 유학생에 관심이 없다고 느끼며, 설문 조사 결과 등록금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지 않음이 가장 많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잘 모르거나 이용을 못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등록금만 인상된다고 생각되어 반대를 하였다고 발언하다. 실제 유학생들의 어려운 점은 한국어 보다는 등록금이 높아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사회대 외국인 학생들의 어려운 점은 여러 부서에서 공유되어 논의하고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는 이미 노후 수업 기자재 교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였고, 2월말까지 구입할 예정이므로 새학기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가 인상 취지가 좋아도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안되며, 인상 사실만 밝히기보다는 인상 취지나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알려져야 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정규등록금 책정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사범대학 공동대표, 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4인이 반대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2025학년도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신설학부(호크마교양대학 글로벌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 학생 요구안 상정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면 되는지 확인하며, 따로 학생요구안 자료가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등록금 관련 요구를 해왔고 학우들이 장학금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총장 후보자들도 학생 장학금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는데 장학금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4학년도에의 경우 대학원등록금 인상,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과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 등을 위한 각종 투자과정에서 장학금이 확대되었고, 계속되는 사업은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새로운 투자도 있을 것이나 현재는 미정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는 당초예산에 총장 당선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 학장과 논의시 총장 당선인에게 재건축이나 시설 개선 검토를 공유하겠다고 하였는데 차기 총장 임기 이전에 확정될 수 없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올해 조형관 건물에 2억 7천만원 정도를 배정하여 녹물 수도를 개선하였고 이번 겨울방학에 환기시설 공사와 외관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검토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인하여 재건축 등 장기 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조형관 건물은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마스터 플랜과 재정이 맞아야 진행이 가능하며, 마스터 플랜이 바뀌게 되면 조형관 재건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재건축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공사는 큰 투자가 필요하여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 공간까지 마련하여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기는 어려우며 마스터 플랜 변경 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건물 유지보수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건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법인 수입이나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학생 등록금만으로 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생요구안 관련하여 논의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단과대학에서 제출하는 유사한 요구안들이 있으

며 여기에는 장학금, 전임교원, 공간부족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예산안이 책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내년 등심위에서는 학생 요구안도 반영해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다.

651

이

13.

445/1

1856

202

	<p>■ 폐회</p> <p>- 위원장이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p>					
<p>장규</p> <p>김</p> <p>18-6</p> <p>확 인</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2024년 12월 10일</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희	이명희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권하은	권하은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박서림	박서림	위 원	전현주	불참
	위 원	박예림	박예림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박지혜	불참	위 원	정예진	정예진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작성 자	<p>예산팀 김민중(인)</p>					